

보 도 자 료



- ◆ 2025. 6. 16. (월) 배포
- ◆ 총 3쪽 (본문 2쪽, 붙임 1쪽)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웅 정책개발실장	☎ 032-770-8450
강민구 홍보실장	☎ 032-770-8631
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	☎ 032-770-8637

지속 가능한 북극항로, 과학으로 길을 찾다

문대림 국회의원실 · 극지연구소 ‘과학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토론회’ 국회에서 공동 개최

-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과학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4월 ‘북극전략펀드 조성 및 전략 세미나’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과학연구의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북극항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특히 기존에 북극항로를 경제적 ‘기회’ 중심으로 접근해 온 담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과학연구를 통해 북극항로 활용에 내재된 위험요인과 도전 과제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 토론회 전반부는 전문가 발표를 통해 북극항로의 미래를 다각적으로 조망한다. 김기태 교수(영산대학교), 김엄지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진경 부장(극지연구소)이 발표를 맡아 북극항로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항로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접근방안, 그리고 대응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 이어서 후반부에는 북극 기후·환경, 해운·항만, 정책, 북극항로 예측, 국내·외 협력 등 각 분야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문대림 국회의원은 “토론회에서 공유된 의견들을 새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과학을 기반으로 북극항로 구축의 경쟁력을 논하는 이번 토론회가 산·학·연 협력과제 발굴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북극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자, 미래 대응을 위해 과학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며, “최근 북극 해빙이 급격히 줄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지금,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약된 국내역량을 바탕으로 북극항로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번 토론회는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극지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opri.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과학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토론회 포스터



시간	행사 내용	
13:30~14:00 (30분)	행사 등록	
14:00~14:20 (20분)	개회식	개회사 신형철 소장 (극지연구소) 환영사 문대림 국회의원 축사 참석내빈
14:20~15:20 (60분)	주제 발표	주제발표 1 북극항로 어제와 오늘: 북동항로(NSR)를 중심으로 김기태 교수 (영산대학교) 주제발표 2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김엄지 실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제발표 3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활용 위한 과학기반 구축 연구 진경 부장 (극지연구소)
15:20~15:40 (20분)	커피 브레이크	
15:40~16:30 (50분)	종합 토론	좌장 홍성원 소장 (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 토론자 김백민 교수 (부경대학교) 이응혁 부장 (부산항만공사) 장하용 실장 (부산연구원) 지준화 교수 (부경대학교) 정지훈 사무총장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16:30~	폐회	

주최  국회의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주관  극지연구소